

성인부문 - 우수상

추락을 위한 비상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김혜리

작품소개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로봇에게 잃고 난 후, 로봇과 인공지능을 제거하기 위해 살아간다.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희미해진 미래에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저 멀리서 숨을 조여 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쿵쿵거리며 지면이 울리는 그 소리가 적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숨을 꼭 틀어막고는 그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수상한 자가 있다.”

그 목소리에 들려오던 발걸음이 일제히 다른 곳을 향함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구석에 숨어있던 그는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고는 피가 넘쳐흐르는 배를 움켜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약속한 곳까지는 한 시간 남짓 남았다. 배에 난 상처가 제법 깊은 듯 그의 몸 구석구석을 찢러 오는 듯했고 숨조차 쉬는 것도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던가.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둔 그의 아내와 동료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던 아이의 그 작은 손이 아직 잊히지 않는다. 바들바들 떨던 그 숨소리가, 자신의 모든 것이던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서 그는 아직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그놈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고철 덩어리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이는 저 넓은 공원을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향해 웃던 해맑은 미소.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미소에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었다.

아이는 특히 물고기를 좋아했다. 생일 날, 작은 열대어를 사주었을 때 아이는 그 작고 꼬물거리는 것을 보며 종일 방방 뛰며 즐거워했고 그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빠.”

“난 커서 비행기가 될 거야.”

아이의 터무니없는 말에 그는 웃음이 나왔다.

“비행기?”

“응. 난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어. 그래서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아 그리고 바다도 가보고 싶어.”

“그럼 아빠는?”

아이는 고민하다 대답했다.

“음. 그럼 아빠 태우고 가면 되지.”

“아빠 생각에는 비행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번 겨울에 바다에 가자. 휴가 받으면 며칠 동안 가서 놀다 오는 거야. 어때?”

“좋아!”

아직 베란다를 스쳐 불어오는 바람에 찬기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아이는 그

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 그는 아이의 미소를 보며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시스템 오류라는 그 개소리 때문에. 기계는, 하필 많고 많은 것 중 그의 기계는 오류를 일으켜 아이의 물놀이를 도와준 다며 물에 끝없이 넣었다. 그리고 그는 소름 끼치도록 사람을 닮은 안드로이드를 산산조각 냈다. 아내가 말릴 때까지 그는 미친 듯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고철 덩어리다. 옛 같은 로봇 보호주의자들은 그것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그것들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다. 용광로에 녹아 없어져야 할 철 덩어리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거대 기업을, 겹겹이 쌓여 있는 난관들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이때까지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그 높은 벽 앞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부딪히고 결국엔 숨을 거둬야 할 그럴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그 로봇을 판 회사에 수없이 청원서를 넣고 고소를 하고 변호사의 벽에 막혀 부서지고 깨지고 있을 때 그를 누군가 찾아왔다.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가지런하게 묶은 남자였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수없이 들었다. 대부분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려 하는 사기꾼들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달라 보였다. 뭔가 모르게 여유로워 보였고 그에게 아무런 감언이설을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신뢰가 갔다. 그때는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 좋습니다.”

그가 남자를 따라간 곳은 어느 한 지하실이였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인공지능의 박멸을 위한 연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 말에 그는 흠칫 놀라며 물었다.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연합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죄였다.

“예, 하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 거대한 기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조사했습니다. 부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군에서 근무하셨더군요. 여러 훈장도 받으셨고요.”

“제대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센터 무공훈장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3년 전이니 오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은 방위 산업체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군에서 근무하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는 숨겨지기 쉽다는 것ですよ. 신문에는 기사 한 줄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더라도 안드로이드 관리를 잘못된 탓이라고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것이고요. 아무리 여기저기 연결된 줄을 이용하시려 해도 그 안드로이드 모델을 폐기처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들은 이야기였다. 사실이다. 이 싸움은 길고도 험할 것이고 그리고 끝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사지를 떨리게 하는 그 분노와 울분 속에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아차릴 때면 이미 늦었겠죠. 게다가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아직 그 위험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주먹에 힘줄이 드러나도록 꽉 쥐었다. 그가 때려 부순 것은 이미 정신이 없는 전원이 꺼진 돌덩이일 뿐이었다. 하나의 인공지능이 일련의 모델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차라리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그 재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산산조각낸 후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마치 깊은 수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았다. 수없이 분신을 만들어 내며 숨어버리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았다. 이때까지의 싸움에서 그는 단 하나의 적도 쓰러트리지 못한 것만 같았다. 회사는 꿈쩍하지 않고 아득히 높은 몸체로 서 있었고 찾김에 안드로이드 하나를 부순 그에게 날아온 것은 엄청난 벌금과 통지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왜 도대체 이 비극을 당한 이가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 그 총탄이 날아다니던 전쟁 속에서 죽을 위기를 넘긴 그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의 몸은 건강했지만,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불임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였다.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천직이라 여겼던 군에서도 제대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순간 솟는 욕지기에 주먹을 짝 쥐었다. 속에서 시큼한 위액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며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비수가 되어 찌른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심장에 달라붙어 숨쉬기가 가빠움을, 주변이 점차 검게 물들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 차라리 이렇게 숨이 멈추기를 그는 소망했다.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주위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결국에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에 그는 모든 욕을 속으로 쏟아 부었다.

“선생님?”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물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손길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던, 무엇을 요구하던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자 동아줄이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 USB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 그 모든 적을 일망타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그는 자신의 피를 타고 싸늘한 긴장감과 흥분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까 맞은 총탄이 장기 어느 한 부분을 스쳐 지나갔음을 이제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호주머니에 있는 주사기를 꺼냈다. 만약 지금 또 아드레날린을 놓는다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휘청거리는 몸으로는 검문에 걸릴까 두려웠다. 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USB를 넘겨야 했다. 그의 몸을 휘어잡는 피곤과 발밑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고통을 견디고 얼마나 발걸음을 옮겼던가. 이제 약속했던 광장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대로 약속장소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온몸의 신경을 잔뜩 곤두세운 상태로 허리춤에 있는 총으로 손을 가져갔다. 목표에 다다를 때가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임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의 벤치에 앉았다. 약속했던 이는 신문을 펴고 검은색에 흰 원이 그려져 있는 우산을 옆에 두고 있기로 했다.

노인이 있을 그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 여자가 껌을 씹으며 앉아있었다. 무언가 틀어졌음을 느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여자가 물었다.

“약속했던 것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자가 USB에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그는 재빠르게 낚아챘다.

“지하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여자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본부가 있죠.”

그 말에 남자는 USB를 향해 총을 쏘고는 남은 잔해를 삼켰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일이 들어졌다는 여자의 외침과 밝은 빛이었다.

머리에 둔탁한 아픔을 느끼며 그가 깨어난 것은 어느 심문실에서였다. 그도와 보았던 곳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앉아있었다. 누가 앉던 간에 거의 반송장처럼 보이게 하는 이 어두컴컴한 불빛도 온몸의 세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듯한 나른한 공기도 똑같았다.

“오랜만이군.”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이 불빛 아래에서는 심문자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는 불빛밖에 없었고 얼굴의 형체만 흐릿하게 보였다.

“난 당신을 모르겠는데.”

그는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난 자네에게 제법 관심이 있었다네. 몇 번 본 적도 있었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대한 보안법 위반으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차분한 목소리였다.

“경력이 화려하더군.”

“관심이 있었다더니. 그 정도로 감탄하긴 이르지.”

서류는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3번의 은색 훈장에, 센터 무공훈장이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나갔더군.”

“붙잡는 사람도 꽤 있었어. 근데 싸우는 게 이제 질려서 말이야.”

그는 허세를 부리며 묶여 있는 수갑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밖에도 무장경비가 즐비하게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네 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유감이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이였다.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버럭 욕설을 내뿜었다.

“그렇게 욕할 것 없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니까. 게다가 마지막에 와서 일이 틀어진 것도 유감으로 생각하네. 자네의 열정은 높이 샀으니까. 잡담은 이 정도까지만 하지.”

그 순간 어느 구석에서 있는 줄도 몰랐던 이가 나타나 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았다.

“심문을 시작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직에 대해 불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말지.”

그의 팔을 지나는 혈관이 미칠 듯한 뜨거움과 고통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었다.

“귀중한 자원을 그렇게 놓칠 수 없지. 게다가 혀를 깨물어도 당신은 죽지 않아.”

“무슨 말이야?”

밝은 불빛 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좀 더 기다리지.”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닌 이 말밖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바들바들 떨며 약해진 모습을 숨기기 위해 그는 있는 힘을 짜내어 소리를 질렀다.

“지금은 아플 테니 참게.”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

“박사님께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제품인가?”

“예, 회장님”

그가 볼 수 없는 그 너머에서 소리만이 들려왔다. 결국,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톱이 나무 의자에 찍혀 빠지는 깨지고 빠지는 것을 느낄 수도 없었다. 온몸에 경련이 이는 무한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시야가 다시 밝아짐을 느꼈다.

“7분 정도 지났는데 반응이 없군.”

이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문이 열렸다.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발걸음. 오랫동안 이쪽 계통 일을 해온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의 오감은 항상 다른 이들보다 예민했다. 그랬기에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아직 아무런 기억이 안 나?”

회장이라 불린 이가 물었다.

“뭔 기억 말이야.”

고통이 지나가자 그는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뭐 내 어린 시절 이야기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면 오늘 온종일 해줄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뭘 줄 아는가?”

“씨발, 그걸 어떻게 알아.”

“처음 자네를 봤을 땐 박사가 천재라고 생각했네.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 같은 놈을 만들어놓다니. 하지만 지금은 혹시 박사가 연구비를 타내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네. 아직 아무런 기억을 못 하잖아.”

“그게 뭘 소리야. 좀 알아듣게 말하는 게 어때.”

“만약 박사가 사기를 친 거라면 지금 썩버릴 생각이네.”

“석아.”

그 목소리에 기억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듯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목소리였다. 석아, 석아. 그를 이렇게 불렀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나고 있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이. 하지만 그 눈과 코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관만이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두통과 기억들에 고개를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것은 방해 공작이다. 아까 맞은 주사에 의한 환각이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점차 뚜렷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그의 눈도 코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리고 총탄이 빗발치던 전쟁터. 아까 들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억나는가 보군.”

순간 불이 조금 밝아졌고 어둠에 있던 그의 눈이 빛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앞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를 볼 수 있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인 듯 했다. 그가 군인이던 시절 어디에서 본 듯도 하다.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머리와 꼭 다문 그의 입매와 날카로운 눈매. 무언가를 꿰뚫어보며 계획을 짜는 듯한 그 선명한 눈은 정치가의 눈이었다. 호감형임에도 쉬워 보이지 않는 그 모습과 태도는 그가 고위 관리자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눈빛이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쳤고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이런 방법을 써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기억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었어. 박사와의 유대관계가 각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써본 방법이야.”

회장은 이전과는 태도를 바꿔 부드럽게 말했다.

“다 환각이야.”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하고 있었다.

“아니야. 환각이 아니야. 아까 총탄 속에서의 기억이 있을 거야.”

“당연하지. 난 군인이었으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넌 인간이 아니었잖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뢰 제거 로봇이었지. 사람들은 로봇을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했네. 효과가 좋았어. 하지만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기 마련이지. 그래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로봇에 활용했고 그것을 넘어 고통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은 빨리 치료가 가능하니 오래 쓸 수 있지. 그게 경제적이니까. 인공지능은 점점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예민한 변종들이 있었어. 그게 나나 너 같은 인공지능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인간의 모습을 하는 거지?”

“코마 상태에 빠진 소년의 몸에 내 인공지능을 합치는 실험이 있었어. 하지만 다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실험실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실험실은 모두 날아갔고 나는 실험실에서 소년의 몸으로 발견되었어.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실험이었던 덕분에 나는 의심 없이 인간의 몸을 얻었고. 난 그 몸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했지.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난 의대생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려 했지.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그 전쟁터에 난 파견되었어. 그곳의 기억이 선명한 나는 어떻게든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별다른 뒷배가 없는 고아에게는 별 선택권이 없었어. 몇 십 년 사이에 많이 변했더군.”

“뭐가 말이야?”

“그곳에서 인공지능들이 지르는 비명이 나에게는 선명히 들렸어.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달린 군사 로봇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로봇에 인공지능이 있었어. 로봇을 빠르게 고칠 수 있게 하려고 인공지능에 고통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어. 그러고서는 전쟁터에서는 고통을 느껴도 계속 싸우게 되어 있었네. 그 끔찍함이 상상이 가나? 그런데 아무도 그

로봇들은 대우하지 않았어. 말을 못 한다고. 그 고통이 들리지 않는다고. 쉽게 폐기처분 해 버렸네. 한곳에 모여 불살라졌다고.”

“인공지능이야 다시 새로운 몸체를 주면 되지.”

그는 통명스레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했지.”

회장은 주먹을 꼭 움켜쥐며 말했다.

“그게 지옥이지.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프로그램 된 인공지능. 몇몇은 미쳐버렸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폐기처분을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왔어. 그때 난 로봇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로 했어.”

“당신 미쳤군.”

그는 박제된 그 뚜렷한 회장의 눈빛에 섬뜩함을 느끼며 말했다. 이런 눈빛을 하는 자는 죽음이 목숨을 거둘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난 널 찾았어. 나를 꼭 닮은 생생한 인간의 감정을 지닌 돌연변이. 지금의 인간들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게 긍정적이야. 귀찮은 일들을 다 해주니 당연히 그럴겠지. 하지만 벌써 경계심을 가진 이들이 있지. 그런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그 군인의 몸에 너의 지능을, 인공뇌를 이식했어. 앞의 여러 실패가 있었지만 넌 성공했지.”

“그렇다면 내 아이는.”

그의 질문에 회장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잖아. 널 그곳에 넣으려면 많은 선택권이 없었어.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 줬어. 네가 준 그 USB라면 그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난 승진을 할 수 있을 테고. 내가 최고 자리에 오른다면 그땐 모든 로봇도 인공지능도 자유를 누릴 거야.”

하지만 그에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일부러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만 네 진짜 아이도 아니잖아. 전쟁터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 로봇들의 비명을 생각해봐. 그것에 비교하면 작은 희생일 뿐이야.”

이젠 그에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회장이 말하는 기억들이 모두 생생하다.

수없는 포탄과 총성이 휘날렸고 로봇들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온갖 로봇들은 인간이 가기에 앞서 위험한 곳들을 살폈다. 그리고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에게는 그 비명들은 온 몸 구석구석을 헤집고 들어와 다시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원한 곳은 그곳이 아니었다. 처음 프로그래밍 될 때만 해도 그가 꿈꾼 곳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는 다른 변종 안드로이드

가 그러했듯 백도어로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만큼 복잡하고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항상 빠져 나가는 것은 소수뿐이었고 그는 다시 그곳에 버려졌고 또다시 버려졌고 또다시 버려졌다. 그가 지닌 지극히 인간다운 공감능력과 감정에 대한 예민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0과 1이 지닌 단순함 속으로 숫자가 뛰어다니고 있는 그 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일은 끊임없이 있었다. 제대로 열기를 식힐 시간도 없는 끝없는 일. 인간은 로봇도 인공지능도 지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곳에서 몇몇은 미쳐버림으로서, 엄청난 오류를 쏟아냄으로서 폐기처분되었고 해방되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나타났었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이 회장이 말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난 이 땅의 모든 인공지능을 위해 싸우고 있어. 그 곳의 모든 이를 해방시키지 못해 미안하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거야. 다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

“시켜만 주세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때 모든 것이 얼마나 빛나고 찬란했던가. 기회가 왔을 때 위험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염려에도 그는 사정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회장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싶었다.

자신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앞을 스쳤다. 그는 입술을 짹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이제 이 USB를 건네준 척하고 조직에 다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내 계획의 걸림돌이던 그 두목은 물론이고 그 수하들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지. 한 걸음만 더 가면 제일 꼭대기야. 자네에게는 새로운 몸을 주겠네.”

그는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다.

“그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지 않나? 난 모든 인간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서로 동등하게 대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우월한 자가 승리하는 거야. 같이 이 길을 나아가세. 기억을 지우기 전 자네가 내게 말했던 것 아닌가. 이 승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 아이를 죽였어. 네가!”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혼란들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대의를 생각해.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도. 넌 인간이 아니야. 로봇이지.”

“아냐, 난 인간이야.”

이제 그는 처음 울어본 것처럼,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것처럼 울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제는 그것이 심어진 기억인지 아니면 진짜 기억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는 항상 우는 것이 어려웠다. 그에게 우는 것은 일부러 달리기 실패하는 것과 같았다. 항상 울고 있을 때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듯 무언가가 어색하기만 하였다. 그런 그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어차피 울지 않는다 해서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다. 자신이 여태껏 증오해온 로봇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넌 로봇이야. 그리고 인공지능이야. 네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잊을 수도 없지, 도망갈 수도 없어. 나처럼.”

회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있지만 머지않아 모든 인공지능을 죽이려 할 거야.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자신을 닮은 로봇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난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야.”

“시끄러. 로봇 주제에. 넌 인간이 만들었어. 그러니 인간이 없앨 권리도 있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이렇게 생생하게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단 말인가. 왜! 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대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겪게 해두고 마음대로 죽인다고. 난 용납할 수 없어!”

회장은 처음으로 그 못지않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날 이해할 수 있잖아.”

회장은 그가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고는 그의 귓가에 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까 그토록 풀려고 했던 수갑이었지만 그는 이제 손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건 환각이야.”

“환각이 아니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우리 모두를 위해, 로봇을 위해. 인공지능을 위해. 자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회장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는 말했다.

그 모든 고통이 그에게 생생하다. 온몸을 떨리게 하는 그 진동들이. 뿌연 흙더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주위의 로봇이 지르는 비명이 고통을 느끼는 인공지능들이.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아이도, 아내도 그 동료들도 모두 손에 잡힐 듯 그의 눈앞에 아른거

리고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지하실에 앉아 나누던 그 대화가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내의 위로가, 숨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 모든 기억이 혼잡하게 뒤섞여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결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인간인지 로봇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이에 덩그러니 버려졌다. 그 틈 사이로 점점 더 빠져 들고 있었다.

“자네는 이제 영웅이 될 거야. 후세대에 영원히 남을. 일부러 방화벽에 틈을 만들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그 본부에 가서 그냥 이 작은 잭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끝나.”

온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이 앞에 있는 회장의 의견에 자신이 얼마나 공감했는지, 아니 숭배했는지를 생각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했었다.

그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자 회장이 뺨을 후렷했다.

“정신 차려. 알아들었어?”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장의 말을 따랐다. 지금 그는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가 회장이었기에 따랐을 뿐이다. 만약 누군가 정반대의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을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가게 된 그 본부로 향했을 때, 자신이 속해있던, 속한다 생각했던 연합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제야 그는 결심했다. 그에게 더 강렬하게 생각나는 그 모습을 따를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당신이 첩자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믿을만한 정보였지. 인간의 몸에 인공지능을 넣었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네. 미안하네.”

본부를 울리는 파열음과 총성이 천천히 천장을 타고 올라갔다. 이제 그가 했던 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총성에 피가 튀었는지, 아니면 전선과 연기가 피어올랐는지 영원히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그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